

Exploring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on Self-Efficacy and Life Satisfaction in Parents Caring for Adult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un-Su Kim*

*Professor, Dept. Social Welfare, Seowon University, Chungbuk, Korea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among parents caring for adult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Data were collected from 300 parents in the Chungbuk region who care for adult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rough a survey conducted from November 1 to November 30, 2023. Out of the collected data, 200 responses were analyzed using SPSS 27.0 Process Macro 4.2. The results indicated that social support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elf-efficacy. Furthermore, both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significantly positively influenced life satisfaction, confirming that self-efficacy partiall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is mediating effect was verified through bootstrapping.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suggests practical and policy efforts to support the formation of social support networks for parents of adult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development of programs to enhance self-efficacy, and educational initiatives aimed at improving life satisfaction.

▶ **Key words:** Social Support, Self-Efficacy, Depression, Mediation effect, Parents of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요 약]

본 연구는 발달장애 성인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사회적지지와 삶의 만족도 간 영향 관계를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2023년 11월 1일 ~ 11월 30일까지 충청지역 발달장애 성인 자녀를 돌보는 부모 300명을 설문으로 수집한 자료 중 200부를 SPSS 27.0 Process Macro 4.2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쳐 자기효능감이 사회적지지와 삶의 만족도 간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매개효과를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통계적 유의성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발달장애 성인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사회적 지지망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지지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등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실천적, 정책적 노력을 제언하였다.

▶ **주제어:**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 매개효과, 성인 발달장애 부모

- First Author: Jun-Su Kim, Corresponding Author: Jun-Su Kim
- *Jun-Su Kim (solrins@naver.com), Dept. Social Welfare, Seowon University
- Received: 2025. 03. 31, Revised: 2025. 05. 02, Accepted: 2025. 05. 08.

I. Introduction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개인의 삶의 경험에 기초하여 즐겁고 행복한 삶을 지향한다. 이는 보편적인 인간의 욕구이며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이러한 삶의 만족감, 행복감과 같은 개념은 개인의 주관적 범주와 개인의 경험을 기반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개인이 속한 사회, 문화적 가치가 기준이 되고 그에 따라 평가하기도 한다[1]. 객관적 기준, 주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삶의 만족은 경제적 상태, 건강, 교육, 노동, 주거환경 등 비교가 가능한 객관적 수준에서 평가된다[2]. 한편에서는 객관적 수준을 고려한 개인의 주관으로 평가하기도 한다[1]. 따라서 동일한 삶의 여건과 조건 속에서도 개인은 삶의 만족도를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는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저하 또는 상실 등으로 인한 기능손상, 사회적 불리와 같은 복합적 개념이다.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표현한다[3]. 장애 중에서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로 구분하며 지적장애는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인 능력 발달이 충분하지 않거나 불완전하여 자기의 일 처리와 사회생활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 경우이고, 자폐성 장애는 언어, 신체 표현, 자기조절, 사회적응 기능과 능력의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4]. 이런 발달장애인에게 신체적·정신적 제약과 더불어 돌봄 필요는 장애인과 가족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우리나라 발달장애 인구는 2014년 20만 3천 879명에서 2023년 27만 2천 524명으로 33.6% 증가했다[5]. 발달장애와 더불어 지적장애 기준의 경계에 있지만,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은 경계선 지능인 700만 명을 포함하면 우리 사회의 발달장애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발달장애는 선천적 원인에 의한 발생률이 높는데, 장애의 조기 발견이 이루어지는 경우 특수교육 및 훈련을 통해 적응적 삶을 살아간다. 그런데도 가족 중에서 장애아동의 출현과 함께 부모의 끝을 알 수 없는 자녀 돌봄이 시작되고 삶의 만족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급격하게 하락한다. 즉, 장애 자녀를 돌보는 부모는 만성적이고 일상적인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돌봄 부담이 생기고 불안정한 심리상태, 좌절감, 불안과 우울 발생 등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6].

삶의 만족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것만이 아닌 주관적 수준의 평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1]. 장애 역설 이론에 따르면 모든 장애인과 돌봄 제공자들이 장애로 인한 위기를 겪지만, 모두 비탄한 삶을 사는 것이 아

니라 적절한 사회적지지(사회적지지)가 있을 때 비장애인 가족과 동등한 삶의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7]. 가족, 친구, 전문가가 제공하는 사회적지지는 발달장애 성인 자녀를 돌보는 부모에게 심리·정서적 안정감을 준다[8]. 더불어 자녀의 증상에 대한 정보, 돌봄서비스 정보 제공 등 돌봄 부담과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5]. 발달장애 성인 자녀를 돌보는 부모는 장기간 자녀 돌봄에 집중하면서 사회적 관계 형성이 불리하며 사회적 지지망에서 소외되기 쉽다[8]. 그러나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사회적지지를 통해 장애 자녀를 돌보는 데 필요한 정보, 기술, 지원 등의 욕구와 기대가 충족되면 비록 장애 자녀를 돌보는 불만족스러운 현재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9].

발달장애 자녀가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정서와 행동 등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고 만성화되면서 삶의 만족도가 하락한다[10]. 그런데, 사회인지 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에 따르면 사회적지지는 부모의 양육 기술 제공, 공적 서비스 정보 제공 등을 통한 돌봄 시간에 대한 부담 경감과 돌봄의 효과적 수행을 경험하도록 하여 부모 자신의 돌봄 수행에 대한 효능감이 발생할 수 있다[11]. 즉, 발달장애 성인 자녀를 돌봄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은 돌봄에 대한 성공적 경험을 인지하도록 하여 이후 돌봄 부담과 어려운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하도록 할 수 있다[8]. 성공적 경험의 인식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무력감과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8][12]. 따라서 발달장애 성인 자녀를 돌보는 부모에 대한 사회적지지는 자기효능감 향상에 영향을 주고 삶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가져올 수 있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 관한 연구들은 그 대상이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우울과 소진에 관한 부정적 결과를 연구해 왔다. 그러나 발달장애 성인 자녀를 돌보는 과정을 통해 누적된 스트레스와 우울로만 나타났다고 할 수 없는 장애 역설 이론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9]는 발달장애 성인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삶의 만족을 연구했고 그 결과를 사회적지지와 삶의 만족도가 긍정적 관계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선행연구[13]도 발달장애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사회적지지가 자기효능감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연구가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며 성인 발달장애 자녀를 돌보는 부모에 대한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 그리고 삶의 만족도 관계를 구조적 분석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영향 과정

에 관한 결과가 일부 질적분석을 통해서도 드러났지만,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려는 양적연구 검증이 많지 않아 다양한 검증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선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발달장애 성인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II. Preliminaries

발달장애 성인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삶의 만족도는 자녀 돌봄의 환경이 주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객관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장애 자녀의 치료, 재활, 취업, 여가에 대한 경제적, 신체적 부담이 있어 삶의 만족도가 낮다[13]. 객관적 상황을 바꿀 수 없지만, 선행연구에서는 객관적 상황 때문에 삶의 만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부정적 편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기제로 사회적지지를 주장한다. 사회적지지는 사회적 관계를 바탕으로 얻을 수 있는 자원이라고 설명된다[14]. 이러한 사회적 관계는 가족, 친구, 전문가 집단 등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형성되는데 정보, 경제적 지원, 정서적 격려, 소속감, 안정감 등 객관적 조건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도록 하여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15]. 이러한 사회적지지는 가족, 친구, 전문가 등 의미 있는 타자와 관계를 통해 전달되고 인지되는 도구적, 정서적, 정보적 자원인 기능적(functional)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16]. 또 다른 측면에서 사회적지지는 개인이 관계를 맺는 사회적 관계망 또는 사회적으로 연결된 조직과 관계 등의 구조적(structural) 측면으로 구분한다[16]. 구조적 측면에서는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 연결망 내에서 역할, 접촉 빈도, 관계의 밀도 등이 사회적 고립과 사회적 통합을 가능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가 높은 발달장애 성인 자녀를 돌보는 부모는 다양한 사회적 어려움에 대한 대처자원을 갖게 되어 삶에 긍정적 경험을 누릴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는 사회적지지를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는 직접·간접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다수 선행연구가 돌봄으로 인한 부모의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 관계에서 이를 매개하거나 중재하는 요인이라고 밝히고 있다[8][9][17-19]. 예컨대 선행연구[9]는 성인 장애 자녀 부모의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관계를 사회적지지가 매개한다고 검증하였다. 또한,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삶의 만족도 향상에 사회적 지원과 지지가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8],[17-19].

사회적지지는 장애 자녀 돌봄 과정에 있어 다양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부모에게 돌봄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확인시켜 준다. 자기효능감은 특정 행동과 과업을 해낼 수 있다는 자기 능력에 대한 신념이라 정의한다[11]. 사회적지지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부모의 자녀 돌봄의 역할을 가능하도록 자원을 지원하고, 구조적 측면에서 사회적 관계망을 확대함으로써 자원 접근성을 높여[16] 특수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스스로 해결해 낼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을 향상할 수 있다[20].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의 관계는 지적 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을 연구한 선행연구[13]에서만 일부 검증되었고 아직 다양한 검증은 시도되지 않고 있다. 선행연구[13]는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사회인지 이론을 근거로 사회적지지가 돌봄 자기효능감을 향상하는 직접적 요인으로 밝혔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역할 수행에 긍정적 신뢰감과 인식으로 돌봄 수행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성공적 경험과 수행을 하도록 하므로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는 요인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하였다[20][21]. 또한, 발달장애인의 취업이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외부활동과 적극적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주장하는 선행연구[12]도 있다.

이처럼 발달장애 성인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자기효능감 간 관계의 인과성은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 그러나 사회적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갖는 매개효과는 아직 다양하게 검증되지 않아 본 연구를 통해 검증이 필요하다.

III. The Proposed Scheme

3.1. Research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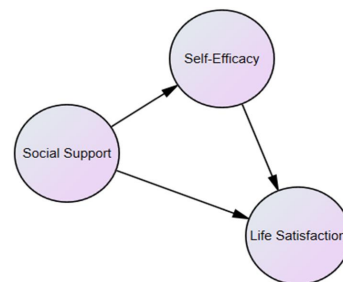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본 연구는 발달장애 성인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에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3.2. Hypothesis

연구문제: 발달장애 성인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사회적지지는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H1. 발달장애 성인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사회적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발달장애 성인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사회적지지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발달장애 성인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발달장애 성인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사회적지지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V. Research method and Empirical Analysis

4.1. Data Collection

발달장애 성인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사회적지지와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충북지역 발달장애 성인 자녀를 돌보는 부모 300명을 2023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조사하여 회수된 220명의 응답 중 체계적 결측과 불성실한 응답 20부를 제외하고 200명의 응답을 최종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를 독립변수,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수로 하여 SPSS 27.0 Process Macro 4.2, Model 4로 분석하였다.

4.2 Development of the Measurement Items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사회적지지를 ‘발달장애 성인 자녀를 돌보는 부모에게 주어지는 가족, 친구, 전문가 등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통해 제공되는 여러형태의 자원’이라고 개념화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McCubbin 등이 개발한 사회적지지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나를 존중해주고 잘한 일에 대해 칭찬해 주었다”, “나의 집안 문제나 개인 문제를 의논해 주었다” 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는 가족지지, 친구지지, 전문가지지 등 3개 하위 요인 각 8문항씩 총 24문항을 5점 리커트 방

식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936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은 ‘장애 자녀를 돌보는 자신의 역량에 대한 자기 확신과 신뢰’로 정의하였다. 자기효능감 측정을 위해 김정희와 박은옥의 연구에서 활용한 General Self-efficacy Scale을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나는 노력하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그 일을 잘 해낼 것이라 믿는다” 등 17문항을 5점 리커트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946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는 ‘발달장애 성인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도’로 개념화하였다. 수준으로 측정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Diener 등이 개발한 Satisfaction With Life Scale을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지금까지 나는 내 인생에서 원하는 중요한 것을 이루어냈다” 등 5문항을 7점 리커트 방식으로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891로 나타났다.

Table 1. Measuring tool

Variable	Concept definition	Reference
Social Support	Various forms of support provided through diverse social relationships such as family, friends, and professionals	24 questions Likert 5 $\alpha=.936$
Self-Efficacy	Self-confidence in caring for a child with disabilities	17 questions Likert 5 $\alpha=.946$
Life Satisfaction	The degree to which an individual evaluates their life positively	5 questions Likert 7 $\alpha=.891$

4.3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본 연구에 참여한 200명의 성인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 중 성별 분포는 남성이 68명(34.0%), 여성은 132명(66.0%)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연령대는 197명을 기준으로, 40세 이상 49세 미만이 24명(12.2%), 50세 이상 59세 미만이 105명(53.3%), 60세 이상 69세 미만이 56명(28.4%), 70세 이상이 12명(6.1%)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 자녀의 연령대는 197명을 기준으로, 20세 이상 29세 미만이 128명(65.0%), 30세 이상 39세 미만이 57명(28.9%), 40세 이상 49세 미만이 10명(5.1%), 50세 이상이 2명(1.0%)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응답은 190명을 기준으로, 나쁜 상태가 32명(16.8%), 보통이 106명(55.8%), 좋은 상태가 52명(27.4%)으로 나타났

다. 경제적 상태에 대한 응답은 191명을 기준으로, 나쁜 상태가 44명(23.0%), 보통이 142명(74.3%), 좋은 상태가 5명(2.6%)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인 자녀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ADL)은 191명을 기준으로, 나쁜 상태가 98명(51.3%), 보통이 47명(24.6%), 좋은 상태가 46명(24.1%)으로 나타났다.

Table 2. Soci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earch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	%
Gender (n=200)	Male	68	34.0
	Female	132	66.0
Parental Age (n=197)	40 year over~49 year less than	24	12.2
	50 year over~59 year less than	105	53.3
	60 year over~69 year less than	56	28.4
	70 year More than	12	6.1
Adult Child Age (n=197)	20 year over~29 year less than	128	65.0
	30 year over~39 year less than	57	28.9
	40 year over~49 year less than	10	5.1
	50 year More than	2	1.0
Parental Health Status (n=190)	Bad	32	16.8
	Nomral	106	55.8
	Good	52	27.4
Economic Status (n=191)	Bad	44	23.0
	Nomral	142	74.3
	Good	5	2.6
Adult Child ADL (n=191)	Bad	98	51.3
	Nomral	47	24.6
	Good	46	24.1

4.4 Sample Characteristics and Correlations of Variables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수들의 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사회적지지의 최소값은 1.64, 최대값은 5.00이며, 평균은 3.18(SD=.720)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의 경우, 최소값은 1.00, 최대값은 5.00이며, 평균은 3.39(SD=.655)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는 최소값이 1.00, 최대값이 7.00로, 평균은 3.40(SD=1.125)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수의 왜도 (-.722 ~ .372)와 첨도(-.120 ~ .344)의 값이 각각 1과 7 이하로 나타나 정규분포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다.

Table 3.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n=200)

Variable	Min	Max	Mean (S.D)	Skewness	Kurtosis
Social Support	1.64	5.00	3.18 (±.720)	.372	.342
Self-Efficacy	1.00	5.00	3.39 (±.655)	-.722	.344
Life Satisfaction	1.00	7.00	3.40 (±1.125)	.108	-.120

변수 간 상관관계 및 다중공선성을 살펴보기 위해 피어슨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여 Table 4에 제시하였다. 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와 자기효능감(Self-Efficacy)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477, p < .001$). 사회적지지와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r=.484, p < .001$)이다. 더불어,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족도 간에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495, p < .001$). 주요 변수 간 상관계수가 .07을 초과하지 않아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 (n=200)

Variable	1	2	3
1.Social Support	1		
2.Self-Efficacy	.477***	1	
3.Life Satisfaction	.484***	.495***	1

*** $p < .001$

V. Analysis results

Table 5는 독립변수인 사회적지지가 매개변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그 결과,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독립변수인 사회적지지는 매개변수 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beta=.449$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의 결정계수 R^2 은 32.3%의 설명력 보였고, 모델의 F값은 11.381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Table 5. Regression Analysis of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Self-Efficacy (n=200)

Variable	B	β	S.E	t	LLCI	ULCI
Cconstant	.756		.454	1.666	-.140	1.653
Social Support	.420	.449	.065	6.422***	.291	.548
Gender	-.142	-.102	.091	-1.550	-.322	.039
Parental Age	.011	.124	.008	1.509	-.003	.026
Adult Child's Age	.008	.094	.007	1.147	-.006	.023
Health Status	.143	.142	.075	1.918	-.004	.290
Economic Status	.094	.067	.099	.949	-.101	.288
Adult Child's ADL	.085	.106	.055	.121	-.023	.193

$R=.568, R^2=.323, F=11.381$

*** $p < .001$

1) ref. male

Table 6은 독립변수 사회적지지와 매개변수 자기효능감이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 건강 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beta=.143^{***}$). 경제적 상태도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beta=.117^{***}$), 발달장애 자녀의 일상생활 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beta=.300^{***}$). 사회적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정적(+) 영향($\beta=.258^{***}$)을 미쳤고, 자기효능감도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beta=.258^{***}$)을 미쳐 자기효능감이 사회적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Regression Analysis of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on Life Satisfaction (n=200)

Variable	B	β	S.E	t	LLCI	ULCI
Constant	-2.049		.743	-2.760	-3.515	-.583
Social Support	.459	.258	.118	3.882***	.226	.693
Self-Efficacy	.468	.245	.126	3.726***	.220	.715
Gender	.176	.066	.149	1.180	-.119	.471
Parental Age	.008	.046	.012	.645	-.016	.032
Adult Child's Age	-.011	-.063	.012	-.908	-.034	.013
Health Status	.276	.143	.122	2.259**	.035	.517
Economic Status	.311	.117	.160	1.939	-.006	.628
Adult Child's ADL	.458	.300	.089	5.142***	.282	.634

R=.717, R2=.515, F=22.004

p<.01 *p<.001

1) ref. male

Table 7과 같이 경로 간 영향 관계가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따라서 매개효과 분해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으로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하였다. 영향력을 분해한 결과 총효과는 $\beta=.368$ 이었고, 직접효과 $\beta=.258$, 간접효과 $\beta=.110$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Table 7. Mediating effect decomposition

(n=200)

Effect	B	β	Boot se	Indirect confidence intervals	
				Boot LLCI	Boot ULCI
Total effect	.367	.368	.110	.438	.873
Direct effect	.459	.258	.118	.226	.693
Indirect effect	.196	.110	.065	.074	.326

VI. Conclusions

발달장애 성인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사회적지지가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 돌봄에 있어 가족, 친구, 전문가의 신체적, 정서적, 물질적 조력과 지원이 돌봄 부담과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정서적 인지를 긍정적으로 하므로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선행연구[8][17-18]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즉, 장애 자녀 돌봄이라는 부정적 상황에서 사회적지지를 통해 정보취득과 자원접근의 기회가 증가하면 삶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꼭 부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장애 역설 이론을 검증한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발달장애 성인 자녀를 돌보는 부모에게는 사회적지지 제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모가 장애인부모회와 같은 자조집단에 참여하여 사회적 연결망을 확장하고, 자녀 돌봄으로 인한 고립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발달장애 성인 자녀를 돌보는 부모에게 정보적 지지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혀졌다. 성인 발달장애인은 학령기 이후 공적 서비스 접근과 정보적 지지가 낮아 공적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기관,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 주간 활동 지원 서비스 등과 같은 공적 서비스 정보 제공과 같은 기능적 측면에서 사회적지지가 필요하다. 현재는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복지로' 등 복지서비스 제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 성인 자녀를 둔 부모 중 노인일 경우 이러한 정보에 대한 인지적 접근이 높지 않아 현실적으로 오프라인, 자조집단 등을 통한 소개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다양한 방식의 복지정보 소통 채널을 보충하고 무엇보다 다수가 접근이 가능한 방식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 성인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사회적지지가 자기효능감을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달장애 성인 자녀 돌봄에 필요한 도구와 정보, 정서적 지원이 돌봄 수행에 대한 자기평가를 긍정적으로 한다는 선행연구[12]

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기능적 측면에서 사회적 지지를 높이기 위한 가족, 친구, 동료 등 의미 있는 타자들 (significant others)과 접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과 접촉의 빈도, 관계의 질을 향상하도록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관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 성인 자녀를 돌보는 부모는 자녀가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직접 경험하고 해결한 성공 경험과 실패와 좌절 경험을 함께 가지고 있다. 사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을 향상하는 것은 행동, 환경, 개인 특성 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한다는 사회인지 이론의 배경에서 이해되고 적용되어야 한다[11]. 즉, 경제적 도움과 정서적 위로 등의 인지된 지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과 유사한 경험을 가진 다른 발달장애 부모의 성공 경험을 나누고 상황에 대한 내밀한 경험, 정서적 공유 등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 이에 발달장애 자녀를 돌보는 부모 간 멘토링 프로그램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성공적 경험뿐만 아니라 실패와 위험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자녀 돌봄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지하는 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자조모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예산과 행정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안, 조례 제정 등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

발달장애 성인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돌봄 역할수행에 긍정적 신뢰감은 돌봄 수행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성공적 경험과 수행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를 향상한다는 선행연구[12][21]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발달장애 성인 자녀를 돌보는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실천적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 자기효능감은 단순히 훈련이 아닌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성공적 경험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12]. 사회인지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성공 경험은 긍정적 자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발달장애 성인 자녀를 돌보는 부모에게 사회참여 및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 경험을 축적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지원은 가정이 사회적 고립을 겪지 않고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긍정적 삶의 경험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발달장애 성인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의 대상이 충북지역에 한정되어 연구결과의 해석과 일반화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밝힌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유사 연구에서 수행되었지만, 본 연구대상으로 반복 검증한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재검증 및 이론적 확장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Park, J. K., and Lee, M. S. "Contemporary Issues in the Studies on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Vol. 40, No. 2, pp. 1-25, 2001.
- [2] Oh, H. K., & Beack, E. R.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Subjective Quality of Life of the Disabled Persons -the physically disabled persons in the Seoul area-".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Vol. 13, No. 2, pp. 157-181. 2003.
- [3]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5.
- [4]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 "Act on the Guarantee of Rights and Suppor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2024.
- [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tatistics on the Registr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2023". 2024.
- [6] Park, S. K., Kim, B. K., Song, J. Y., and Nam, J. H. "The effect of care burden on depression among mother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 analysis of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 2, no. 3, pp. 153-175, 2018. DOI : 10.21321/jfr.23.3.153
- [7] Krahn, G. L. "Conceptualizing social support in families of children with special health needs". Family Process, Vol. 32, No. 2, pp. 235-248, 1993. DOI : 10.1111/j.1545-5300.1993.00235.x
- [8] Cho, I. S., and Moon, K. I. "Factors Affecting the Life Quality in Mother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KOREAN MATERNAL AND CHILD HEALTH, Vol. 20, No. 2, pp. 119-131, 2016. DOI : 10.21896/jksmch.2016.20.2.119
- [9] Lee, H. I., and An, J. S. "The Effect of Caregiver Stress on Life Satisfaction in Parents of Adult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are Moderated by Social Support".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 28, No. 3, pp. 107-128, 2023. DOI : 10.21321/jfr.28.3.107
- [10] Lee K. J.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networks and degree of support on parenting stress and depression in mothers of developmental delay children". A structural model of caring behavior of mothers of disabled children.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3, No. 1, pp. 43-61, 2008.
- [11] Bandura, A.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Vol. 37, No. 2, pp. 122-147, 1982. DOI : 10.1037/0003-066X.37.2.122
- [12] Kim, J. Y. "The Effect of Employment Status and Self-Efficacy on Life Satisfaction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Disability & Employment, Vol. 30, No. 1, pp. 25-50, 2020. DOI : 10.15707/disem.2020.30.1.002
- [13] Kim, K. Y. "An exploratory study of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caregiving self-efficacy among mothers of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across the life span".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 23, pp.

- 43-69. 2008. DOI : 10.16975/kjfs.2008.23.002
- [14] McCubbin, H. I., J. Patterson, M. Rossman, and B. Cooke. "Social Support Inventory". 1982.
- [15] House, J. S.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Reading, MA: Addison-Wesley. 1981.
- [16] Thoits, P. A.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processes: Where are we? what nex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Extra Issues, pp. 53-79. 1995. DOI : 10.2307/2626957
- [17] Oh, R. S. and Cho, Y. A.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of Paren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ocusing on Child's Problem Behavior, Social Support, and Personality Strengths". Special Education Research, Vol. 20, No. 3, pp. 5-31, 2021. DOI : 10.18541/ser.2021.08.20.3.5
- [18] Park, J. K, and Um, M. Y.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 The Mediating Effect of Acceptance of Disability -".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Vol. 13, No. 4, pp. 1-23, 2009.
- [19] Jo, Y. K. "Qualitative Analysis on Present Conditions of Quality of Family Life and Support Needs of Families of Preschoolers with Disabilities". Aisan Journal of Education. Vol. 6, No. 4, pp. 145-172, 2005.
- [20] Cho, S. H., and Cho, M. L. "A Study on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of Middle-Aged and Elderly People". Journal of Korean Aging Friendly Industry, Vol. 16, No. 1, pp. 49-59, 2024.
- [21] Nam, Y. H., Chae, I. S., Lee, S. J., Chun, D. H., and Kim, Y. S. "A Study of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of those with Disability Owing to Spinal cord Injury : Focusing on Mediatory Effects of Self-efficacy".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 37, No. 2, pp. 1-22, 2011. DOI : 10.15820/khjs.2011.37.2.001
- [22] Kim, J. H., and Park, E. O. "The effect of job-stress and self-efficacy on depression of clinical nurse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 21, No. 2, pp. 134-144, 2012.
- [23] Diener, E. D., Emmons, R. A., Larsen, R. J., and Griffin, S.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 49, No. 1, pp. 71-75, 1985. DOI :10.1207/s15327752jpa4901_13

Authors



Jun-Su Kim Received the Ph.D. degrees in Social Welfare department of Jeonbuk National University, in 2019. Dr. Kim joined the faculty of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t Seowon University, Chungbuk,

Korea, in 2022. The main interesting fields are Social work practice and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Community organization, Elderly welfare, Program development and evaluation.